

광주·전남 大해부

<제1부> 일자리 도시 광주

유통·금융…서비스업 유치로 자생력 회복 급선무

5 '괜찮은 일자리' 만들려면

광주·전남 고용 악화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광주·전남 젊은층들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인구 유출까지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만난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임시 변통식 땜질 처방'이 아닌,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교한 정책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진짜 일자리가 필요해=광주시는 지난 5년간 9만6천 963개의 일자리를, 전남은 2천300여개 기업을 유치해 8만7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큰소리 치지만 취업현장 한가운데 선 젊은층들에겐 와닿지 않는다. 생겠다가 금세 사라지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변죽만 울리는 '뜬구름 잡기'식 솟자놀음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행정인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 일자리는 대부분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단기 일자리"라며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일자리 창출력을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과

지도도 많다.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경제 주체 모두가 책임=중소기업들은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젊은층들은 '갈망한 직장'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게 현재 광주·전남 취업시장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머리를 맞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대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 교수는 "기업, 자체, 지역고용지원센터, 광주지방 노동청, 지역훈련기관과 대학 및 연구소 등 고용·인적자원개발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이를 토대로 지역 고용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는게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지원 시스템, 인프라는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걸 경제살리기운동본부 기획단장은 "선진국에서도 지역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포과학대 협광석 교수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행동계



지역 전문가들은 '일자리 도시' 광주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관련 전문가·기업·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정교한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광주전자 공장 내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행정인턴 등 땅질 처방으로 고용문제 해결 못해

구인-구직자 눈높이 맞춘 취업 알선 정책 필요

살아나지 않고 정부 재정이 축소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세금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편법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손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제조업 부문보다 서비스업 부문으로 판단됨에 따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전남대 경영대 경영학부 흥성우 교수도 "임시 일용직, 저임금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양적 실적을 옮길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꼽았다.

홍 교수는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의 취업률 자료를引用, "광주·전남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고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해 노동시장 경쟁이 심한 상황"이라며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고급 노동력이 유출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괜찮은 일자는 '선진형 산업'이라는 금융·유통·통신·법률 등 서비스업 분야나 제조업 쪽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이들 분야의 지역 내 비중이 낮다는 점, 기업 내에서도 기획·연구 등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은 분야의 일자리가 광주·전남 지역에 적다는 점을 주목해 전략적으로 키우거나 육성하는 정책도 발굴해야 한다는

회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나 세종시 수정안 등 한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면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가 오라고 해서 이전거나 투자를 감행할 기업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투자 및 고용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영섭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정보나 인력 풀을 구직자와 구인업체에 단순 제공하는 수준이 아닌, 양측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취업 알선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에 공급되는 일자리와 취업 희망자들의 기대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점에서 '인력 마케팅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 기업이 필요로하는 맞춤형 인재나 구직자가 고고신어하는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적극적 취업 정책을 통해 고용자와 취업 희망자 간의 불일치 현상을 줄이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하루 아침에 질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할수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들어올만한 지원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는 등 원칙에 충실히 하는 게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인력개발원 만들고, 문화산업·경관농업 육성하고

■ 시·도지사 일자리 일자리 공약

지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삼성광주전자나 기아차 광주공장 등 대기업 집단이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정체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금호 타이어,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의 기업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냉혹한 현실 앞에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들 역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이용섭 의원은 일자리 창출 지원본부를 통한 계층별 일자리와 문화 복지 교육 미래산업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세우겠다고 했다. 또 광주시 산하에 노동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 총괄, 산업수요가 발생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용능력을 개선 혹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지사 후보로 지역민들과 만나고 있는 이석형 전 합동군수는 농업과 자연환경을 결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농업과 자연경관을 결합한 경관농업, 생산과 유통, 판매를 복합화한 새로운 농업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일

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농업단지에 화훼단지를 조성, 청년실업자들을 전남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에너지조합을 설립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걸었다. 도내 지방공단 및 기업의 지역 학생 신규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도 발주 사업 신청시 기산점 부여 등도 약속했다.

주승용 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총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내걸었다. 임기 내 청년 일자리 1만개, 중·장년 및 경력자 일자리 3만개, 여성 및 장애인 일자리 1만개, 노인관련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

주 위원장은 고용기금조성·취업지원센터설치·중화학공업 및 조선관련 중소기업 유치·F1대회·2012 여수세계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와 연관된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이 같은 공약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
경찰학원의
한국신화는
계속된다!

원장_경찰학 박사 김재규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5년) | 1년 회원제 | 6개월 회원제
이론증집반 | 문제풀이반

최고의 시설
KPA 싱글하우스 | KPA 독서실 | 무료 동영상실 |
무료 자습실 | 편안한 휴게실 | 체력단련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062)236-3112 | 전남여고 후문 앞

제3종 (자동차 대인·대물)
손해사정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

제1회 보험 심사역

개강 2월 1일 * 국비지원·고용보험환급
* 농품사시험일 평일반 (2010년 5월 9일) 주말반

내총 행정고시학원
상담 문의 361-8110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은행 2층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http://kwangju.land3.co.kr

전국 최다 합격생 배출한 그학원 LAND3
2010년도 100% 합격보장!!

개강 2월 1일 국비환급 100%

▶동영상 무료 전과목(연회원)
▶오답 노트 제공
▶교재무료 (기본서 6권 제공)
▶동영상 강의만(6과목)
(가입시 부터 ~2010.8.31→290,000원)

민개공 3인방

- 박홍전 교수(개론)
- 강근호 교수(민법)
- 고상철 교수(공법)

LAND 529-8838
운암동 광암고가 옆 삼애신협 2층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목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좌제
- 대상: 실업자 약간대생 등 - 개강: 2월 1일
- 현재 접수 중, 선착순 00명
5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랍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 훈련수당 지급
◆ 특전- 병원, 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 역 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임영연기 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